

# 전국 펫 여행 성지 급부상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탄력

### 임실군 오수의견 국민여가 캠핑장, 이용객 2795명 반려동물 1062마리 방문

임실군 오수의견 국민여가 캠핑장이 개장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시적인 운영성과를 거두며 지역 대표 반려친화 관광지로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캠핑장을 찾은 반려가족은 약 1,000여 가구로, 총 이용객 2,795명과 동반한 반려동물은 1,062마리가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결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있다는 평가다.



임실군 오수의견 국민여가 캠핑장이 개장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시적인 운영성과를 거두며 지역 대표 반려친화 관광지로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방문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반려인뿐 아니라 비 반려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구조로 조성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건강한 반려문화 형성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이러한 운영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아산도어 스포츠 산업과 연계한 반려견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캠프·레저·스포츠·반려문화가 결합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사계절 방문 동기를 강화하고 전국 단위 관광객 유입을 확

대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캠핑장이 위치한 오수의견 관광지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2026 임실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오수의견 국민여가 캠핑장은 반려동물 동반 관광을 넘어, 지역과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복합관광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누구나 만족하는 전국 대표 여가 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고용노동부 청년 지원 공모 선정 잇따라

남원시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과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에 잇따라 선정되며 사업비 358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지역은 취업 준비와 성장 단계를 연계한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18세부터 45세까지 구직단념·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사업으로,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 고취,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올해 52명 규모로 추진한다.

과 진로 탐색, 역량 강화, 인생 설계 교육, 직무 탐색, 네트워크 형성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원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동문로 50-7)와 남원 청년도전지원사업단(남문로 448, 3층)을 거점으로 오는 3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공모사업 동시 선정을 통해 단순한 일자리 연결을 넘어, 청년의 심리적 회복부터 직무 역량 강화, 그리고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 '일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2026년 수행기관으로 휴먼제이앤씨를 선정해 협력 체계를 구축, 해당 기관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사업 수행으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 추진, 15세부터 45세까지 청년 364명을 대상으로 자기 이해

특히 인근 지리산권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지리산권 청년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남원에 머물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여 활력 넘치는 청년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해빙기 취약시설 438개소 안전점검 추진

순창군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2026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해빙기(2~4월) 동안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붕괴, 전도, 낙석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전체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 부서가 참여해 분야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438개소로, △산사태 취약지역 139개소 △급경사지 290개소 △건설현장 3개소 △국가유산 6개소 등이다. 산림공원과, 안전재난과, 민원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등 5

점검은 1차로 각 관리부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고, 2차로 안전재난과에서 분야별 1개소 이상 표본 합동점검을 진행해 추진 실태를 확인해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성인문해교육' 수강생 모집

남원시가 평생 글을 몰라 불편을 겪어온 어르신과 배우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해 '2026년 성인문해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23일부터이며, 이번 교육은 단순히 한글을 익히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읽기와 쓰는 능력을 갖추고 사회와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을 배우고, 생활 문해 교육에서는 금융 거래와 교통수단 이용,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수강료와 교재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되어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을 없앤다.

교육 과정은 기초 문해 교육과 디지털 문해 교육, 생활 문해 교육으로 나누어 운영, 기초 문해 교육에서는 한글과 숫자를 익히고, 디지털 문해 교육에서는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

/남원=김기두 기자

### 스마트경로당 '온택트 콘테스트'

#### 남원시, 스마트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경로당 팀 대항 방식 운영

남원시는 23일부터 관내 36개 스마트 경로당을 대상으로 '온택트 콘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경로당 구축 이후 스마트화상회의 서비스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비대면 여가복지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 경험을 높이고, 경로당 중심의 공동체 활동을 되살리는데 초점을 맞춘다. 예선은 2월 23일,



24일에 진행하고, 본선은 25일, 결승은

26일에 이어간다.

'온택트 콘테스트'는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이 화면으로 만나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경로당 간 연결해 팀 대항 방식으로 운영되며, '참여'와 '소통'의 무게를 두고 웃고 즐기며 팀으로 어울리는 과정에 의미를 둔다.

주요 내용은 초성퀴즈, OX퀴즈, 사진맞이기 등 퀴즈형 프로그램이며, 난이도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부담을 낮추었으며, 노래에 맞춰 율동 따라하기, 건강 박수 등을 통해 신체 활동도 곁들여 분위기를 살린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찾아가는 미술관' 영화관 속 세계 명화

순창군이 군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찾아가는 미술관' 제2탄, 영화관 속 '세계 명화 이야기' 전시를 작은 영화관 '영화산책'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1탄의 성공적인 운영에 이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 군민들이 일

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확장하고, 보다 많은 군민이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작은 영화관에서 만나는 세계 명화 이야기'라는 이색적인 콘셉트로 진행되어,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찾은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영을



가다리는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명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해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적 효과도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전액 무료 확대

임실군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과 골다공증 등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부터 검진 지원 연령을 기존 만 70세에서 만 80세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소를 둔 51세부터 80세까지의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46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가 해당된다.

검진 비용은 인당 최대 22만 원 상당이며, 군은 검진 시 발생하는 자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해 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진 항목은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및 손상 위험도, 폐활량, 영양상태 검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일반 건강검진과 달리 농작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검진으로 운영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농업인이 직접 농업·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교통정보 앱 통한 스마트 행정 구현

남원시가 '남원시 교통정보 앱'을 통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대폭 강화하고 스마트 행정 구현에 나섰다.

관계자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해 도입한 교통정보 앱을 통해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와 공영주차장 정보를 제공해 왔고, 올해는 시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실시간 버스 위치 확인 기능'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앱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향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